



# 필리핀한상공회의소뉴스

##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November 2023 Issue | Vol. 84

###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경제 성장에서 아세안을 선도할 것 —page 1
- 상품 무역이 연말까지 약해진 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age 2
- 한국 상공회의소, 전기차 혜택 부여 계획을 환영하지만 필리핀의 인프라 결핍을 지적 —page 2-3
- 서울 공항 운영사, NAIA 개선 입찰 — page 4
- 11월에 금리 인상 정지가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 —page 4-5
- DDF, 4분기에 세무 행정 조치 강화를 다짐 —page 5-6

### 필리핀, 경제 성장에서 아세안을 선도할 것

November 03, 2023 | Lawrence Agcaoili | The Philippine Star

#### For 2023, 2024

필리핀 - 필리핀은 미래 두 해 동안의 예상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 은행이 말했듯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등장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대형 은행인 메이뱅크(Maybank)는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5.2%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6.5%로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경제 성장은 2021년에 5.7%의 확장 후, 2022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7.6%로 가속화했다.

엄격한 코로나19 격리 및 봉쇄 규정으로 경제가 정체되어

2020년에는 9.5%의 수축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뱅크는 필리핀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평균 4%이고, 2024년에는 4.7%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필리핀의 성장률은 인도네시아의 5%, 베트남의 4.8%, 말레이시아의 4%, 태국의 2.9% 및 싱가포르의 0.8%보다 빠르다.



Malaysian banking giant Maybank said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of the Philippines may slow to 5.2 percent this year before rebounding to 6.5 percent next year.

Philstar.com / Irra Lising

필리핀 경제는 상반기에 5.3%로 성장하며, 정부의 6~7% 목표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2분기에는 1분기의 6.4%에서 2분기에 4.3%로 둔화되었다.

2024년에는 필리핀의 GDP 확장률이 베트남의 6%, 인도네시아의 5.2%, 말레이시아의 4.4%, 태국의 3.6% 및 싱가포르의 2.2%보다 빠르다.

메이뱅크는 2024년에 대한 밝은 전망의 아세안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미국의 갭지출과 반도체 및 전자차 제조업체를 위한 관대한 보조금을 통해 주도되는 미국의 GDP 강한 성장과 국내 서비스에서의 복수 소비(fading revenge spending)로 인한 국제 소비 지출의 제품으로의 이동 및 정상화와 같이 언급했다.

말레이시아의 대형 은행인 메이뱅크는 또한 교체 기술 주기, 미국 재고의 감소, 상품 및 칩 가격의 저점과 같이 아세안 수출 성장을 2024년에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아세안-6 국가의 무역 및 제조 데이터에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났다,” 메이뱅크는 말했다.

또한, 메이뱅크는 더 강한 무역 회복 이외에도 제조 공급망 이동으로 인한 외국 직접 투자의 증가로 인한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언급했다.

메이뱅크는 글로벌 성장이 미국에서의 강한 움직임, 유럽 연합의 활동 약화 및 중국의 수요 억제로 인해 2024년에 도달하기도 전에 녹아 없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경제 전체적으로 외부 부채가 감소하고 견고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이러한 변동을 버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메이뱅크는 밝혔다.

메이뱅크에 따르면,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 또한 더 편안한 수준으로 물러갔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3/11/03/2308476/philippines-lead-asean-economic-growth>

**상품 무역이 연말까지 약해진 채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ovember 03, 2023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ICTSI.COM

세계은행에 따르면, 필리핀의 수출 및 수입 증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약한 외부 수요로 인해 연말까지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서비스 거래를 선호하는 양상을 유지함에 따라, 장래의 2023년 이후 상품 무역에 대한 글로벌 전망은 계속해서 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필리핀의 주요 상품인 전자제품 수출을 포함합니다,"라고 세계은행 필리핀지사 선임 경제학자 랄프 반 도른이 이메일로 BusinessWorld에 말했습니다.

반 도른 씨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2023년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상품 무역 둔화에 약 4%포인트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을 우려하게 하는 것은, 2023년의 성장이 5.1%로 예측되는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최대 무역 파트너들의 성장 둔화가 필리핀의 수출 상품에 대한 외부 수요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현지 통계 당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초 8개월 동안의 무역 적자가 지난해 동안의 4186억 달러에서 3631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8월 말 현재, 수출은 4781억 달러로 6.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8412억 달러로 9.6% 감소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수출에 대한 1% 성장과 수입에 대한 2%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Pantheon Macroeconomics의 주요 신흥 아시아 경제학자인 미게르 찬코는 필리핀이 수출 및 수입 성장 가정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메일로 '만약 명목적으로 (즉, 실질이 아닌) 얘기하면, 정부의 수출 및 수입 예측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1% 수출 성장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 수입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국내 수요가 민간 소비부터 고정 투자까지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둔화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찬코 씨는 다른 주요 수출국들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같은 다른 주요 수출국들에서 전자제품 수출이 점차 정점에 다다르기 시작하고, 이번 해 종료 전까지 견비된 한도 내에서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이 수요를 지탱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저항으로 인해, 위험은 여전히 하향으로 기울어 있을 것이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의 반도체 및 전자산업 협회 (SEIPI) 회장인 다닐로 C. 라치카는 올해 전자제품 수출에 대해 여전히 성장률이 없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2023년 성장 전망은 유지됩니다. 2024년 전망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2023년보다 더 나아질 것을 희망합니다," 그는 바이버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SEIPI는 상반기의 약한 실적으로 인해 5%에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을 수정했습니다.

8월 말 현재, 전자제품의 수출은 전년 대비 4.8% 감소하여 268억 달러로 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수출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3/11/03/555126/phl-trade-in-goods-seen-to-remain-weak-until-yearend/](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3/11/03/555126/phl-trade-in-goods-seen-to-remain-weak-until-yearend/)

**한국 상공회의소, 전기차 혜택 부여 계획을 환영하지만 필리핀의 인프라 결핍을 지적**

November 02, 2023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마닐라의 전기차 (EV)에 대한 계획된 인센티브는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nt. page 3]

**한국 상공회의소, 전기차 혜택 부여 계획을 환영하지만 필리핀의 인프라 결핍을 지적***[Cont. from page 2]*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Joseph Um은 필리핀 정부의 계획된 전기차 인센티브가 한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므로," Um은 지난 주에 열린 12번째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Um 회장은 필리핀 내에서 충전소 및 인프라의 부족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현지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10년 동안 4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인센티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이륜차와 전기 트라이크, 그리고 전기 공공 유틸리티 차량 (e-PUVs) 및 전기 버스가 포함될 것입니다.

경쟁력과 혁신 그룹의 DTI 부차관 라파엘리타 알다바는, 기관이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보조 프로그램 하에서 정부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직접 금전 환급이나 할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알다바는 정부가 이륜차 EV 구매자에게 1만 페소, 삼륜차 EV 구매자에게 2만 페소, 그리고 e-PUV 구매자에게 50만 페소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미국 상공회의소 (AmCham)는 지난 주에도 정부가 EV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EV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산업 발전과 무역 정책 그룹(IDTPG) 부차관인 세페리노 S. 로돌포는 필리핀과 한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 협정(FTA)이 EV와 같은 "미래 지향적" 산업에서 투자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관리가 그 협상이 2019년에 시작될 당시에는 "미래 지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돌포는 FTA 협상의 일환으로 "그 당시에는 전기차가 미래를 향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기차가 이미 여기에 있다"라고 지난 주 뉴스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로돌포는 FTA의 제 7장에 따르면 "당사 간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다음 분야에 중점을 두는 협력 활동을 탐구하고 이행할 것으로 정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필리핀이 "중요 광물의 가공에 관한 합의에 대한 이해각서(MOU)"를 통해 협상 중이라고 이전에 밝혔습니다.

로돌포는 "EV 배터리 측면에서 정말로 뛰어난 두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전기차 협회(EVAP)는 2주 전에 업계가 2030년까지 전기차(EV)를 66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필리핀에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2,536대에 이르렀습니다. EVAP의 데이터에 따르면 1월에는 전기차가 452대 판매되었으며, 2월에는 760대, 3월에는 1,324대가 판매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EVAP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총 14,357대를 판매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3/11/02/south-korea-chamber-lauds-plan-to-grant-ev-perks-but-cites-phls-infra-deficiency/>*

## 서울 공항 운영사, NAIA 개선 입찰

October 27, 2023 | Elijah Felice Rosales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마닐라 —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를 운영하는 기업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입찰서를 구입하고 게이트웨이를 관리할 권리에 대한 경쟁을 강화시켰다.

교통부 장관 Jaime Bautista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NAIA를 운영 및 유지할 P1706억원 계약을 입찰하려고 고려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로써, Bautista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나쁜 공항 중 하나로 평가되는 NAIA를 개선하기 위한 15년간의 콘세션에 관심을 가진 당사자가 7개로 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입찰서를 이미 구입한 7개의 그룹이 이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서를 구입한 그룹은 한국의 인천공항그룹입니다," Bautista가 말했습니다



This undated photo was taken at the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Philstar.com / Anjilica Anda

인천 그룹의 추가로 인해 NAIA 거래에 대한 가능한 입찰자 명단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 회사는 Skytrax에서 2023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게이트웨이 중 하나로 기능하며, 2019년에는 기록적인 7,117만 명의 여행객 이동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전에, DOTr은 GMR Airports International BV, San Miguel Holdings Corp, Manila International Airport Consortium (MIAC), Spark 888 Management, Asian Airport Consortium 및 Cengiz Insaat Sanayi ve Ticaret A.S.와 같이 6개 기업에 입찰서를 발급했습니다.

예정대로 교통부(DOTr)는 관심 있는 입찰자 중 일부의 임원들과 일대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우티스타는 기관이 GMR Airports, San Miguel, MIAC 및 Asian Airport Consortium과 초기 회담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NAIA가 양도되면 누가 실제 부동산세를 지불하는지와 같은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관심 있는 입찰자가 회합하면 정부는 콘세션 계약의 최종 초안을 12월 4일에 공개하고, 12월 27일까지 입

찰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후에는 2024년에 가장 자격 있는 입찰자에게 계약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 국립 경제 및 개발 기관(NEDA) 이사회는 DOTr에게 획득된 방식을 통한 1706억 페소의 NAIA 민영화를 추진할 초청식 과정을 승인했습니다.

콘세션업자는 콘세션에 명시된 모든 개선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15년의 기간을 부여받으며, 이 기간은 10년 연장 가능합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3/10/27/2306805/seoul-airport-operator-bidding-naia-rehab](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3/10/27/2306805/seoul-airport-operator-bidding-naia-rehab)

## 11월에 금리 인상 정지가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

November 03, 2023 | Ian Nicolas P. Cigaral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지난 주의 금리 인상 이후, 방코 센트럴 뉴스 필리핀 (BSP)가 올해의 긴축 조치를 마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가오는 데이터는 중앙은행이 고집스럽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는 한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INQUIRER.NET

Pantheon Macroeconomics의 경제학자인 미겔 찬코는 이메일 코멘터리에서, 지난 주 금리 인상을 실시한 BSP가 "성급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며, 11월 16일의 통화위원회(MB) 회의에서 추가 인상은 희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다음 달(11월)과 12월의 회의에서는 확률적으로 금리 조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 몇 가지 주요 데이터 공개가 BSP의 매히시 의향을 달래주겠죠," 찬코는 10월 인플레이션과 3분기 국내총생산 공식 데이터 발표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Cont. page 5]

## 11월에 금리 인상 정지가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

[Cont. from page 4]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고려하면, 경제가 기술적인 불황을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말까지 목표 범위 내의 인플레이션 복귀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나타나는 데이터

지난 주, 엘리 레모로나 주지는 11월 회의에서 BSP가 키 금리를 다시 인상하기로 결정할 경우 25 기점 인상이 '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능한 긴급 일시 중지를 포함한 모든 결정은 나타나는 데이터에 따라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급작스럽게 인상한 결정을 정당화하면서, 레모로나 주지는 통화위원회(MB)가 "시장에게 BSP가 공급 측면의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인정한 대로, BSP는 올해와 내년에 2~4%의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는 달에 감소할 수 있고 심지어 목표로 '잠시'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공급 측면 요인

마닐라의 ING 은행에서 고문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마파도 찬코와 동의했으며, BSP가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SP는 통화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공급 측면 요인에서 오는 가격 압력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BSP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밀한 타격 능력이 부족하며, 성장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자본 형성을 간접적으로 늦추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Mapa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BSP가 이차적 효과를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실시하더라도, 항상 먼저 성장을 늦추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29791/rate-hike-pause-seen-likely-in-november>

## DOF, 4분기에 세무 행정 조치 강화를 다짐

November 02, 2023 | Chino S. Leyco | Manila Bulletin

MANILA BULLETIN

### 한눈에 보기

- 핀란드 재무부(DOF)는 국세청(BIR)와 세관청이 세금과 관세를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 관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재무부 장관인 벤자민 E. 디오코노는 올해 남은 개월 동안 정부의 두 대표적인 세금 기관에서 강화된 관리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실시될 프로그램은 세금 준수 확인 캠페인, 세금 탈세자 추적 작전(RATE), 오픈랜 칸다도, 필리핀 해외 게임 사업자(POGO) 태스크 포스, 특공팀 및 BIR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 BIR는 가짜 영수증과 영수증을 이용한 개인들을 검출하고 처벌하기 위해 가짜 거래 추적 작전(RAFT) 캠페인을 강화했습니다.
- 세관청의 경우, 기름 표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실행을 지속할 것이며, 수입업자의 사후 감사 허가를 강화하고 무역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국경 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Cont. page 6]

## DOF, 4분기에 세무 행정 조치 강화를 다짐

[Cont. from page 5]

핀란드 재무부(DOF)는 국세청(BIR)와 세관청이 세금과 관세를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 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인 벤자민 E. 디오르노는 정부의 두 대표적인 세금 기관이 올해 남은 개월 동안 강화된 관리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세금 준수 확인 캠페인, 세금 탈세자 추적 작전(RATE), 오픈랜 칸다도, 필리핀 해외 게임 사업자(POGO) 태스크 포스, 특공팀 및 BIR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또한 디오르노 장관은 BIR가 가짜 영수증과 영수증을 사용하는 구매자, 판매자 및 공인 회계사(CPAs)와 같은 개인을 검출하고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Run After Fake Transactions (RAFT)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세관청에 대해서는 재무부장은 연료 마킹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실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수입업자의 사후 감사 승인을 강화하고 무역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 정부 수입액은 9개월 동안 2.84조 필리핀 페소로, 지난해 동기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DBCC의 연간 프로그램인 3.73조 필리핀 페소의 76.1%를 차지하는 수입입니다.

세금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기간에 2.54조 필리핀 페소로, 전년 대비 6.4% 향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BIR는 수입을 1.86조 필리핀 페소로 증가시켜, 지난해 동기 대비 7.3%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BIR의 3분기 수입은 목표치에서 3.9% 낮았습니다.

디오르노 장관은 목표치 미달의 원인으로 개인소득세 감세, 자본재에 대한 부가세(VAT)의 즉각적인 지출, 그리고 올해부터 월간에서 분기별로 VAT 신고료의 변경을 지적했습니다.

세관은 9개월 동안 660.4억 필리핀 페소로 수입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2.5% 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처로부터의 세수도 전년 대비 27.1% 증가한 22.9억 필리핀 페소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비세금 수입도 유의미한 향상을 보며, 1월부터 9월까지 296.5억 필리핀 페소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3/11/2/dof-vows-intensified-tax-admin-measures-in-q4>*

##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FREE DELIVERY  
WITHIN METRO MANILA**

**ORDER NOW**

**Gotta wifi**

**#UnlimitedRoamingData**

**EXPERIENCE  
BEST  
VACATION  
With GottaWifi**

**CONTACT US!**

- For order and inquiries **02-8511-1715**
- Call or Text us **0999-8879-711**
- Email us **cs@corea.ph**
- Message us on Kakao **@coreon**
- Visit our website **www.gottawifi.coreonmobile.com**
- Follow us on facebook **GottaWifi**
- Follow us on Instagram **GottaWifi**